
2019 달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19.12.



달 성 군 의 회

목 차

I . 연수개요	1
II . 연수일정	2
III . 연수내용	4
1. 기관별	4
2. 분야별	18
IV. 총 평	29

I. 연수개요

출 장 국 :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출장목적

-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의 선진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기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감각에 맞는 선진의회상 정립
- 대구교도소 주변 일원 도시재생사업, 달성1차산업단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지역 내 구도심에 대한 친환경 도시재생 관련 정책 자료수집 및 우수사례 시찰
-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하여 세계문화 유산 보전 및 관광 사업화 활용사례 수집
- 인구 대량 유입과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달성군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비교 견학 실시

출장기간 : 2019. 10. 30.(수) ~ 11. 7.(목) / 7박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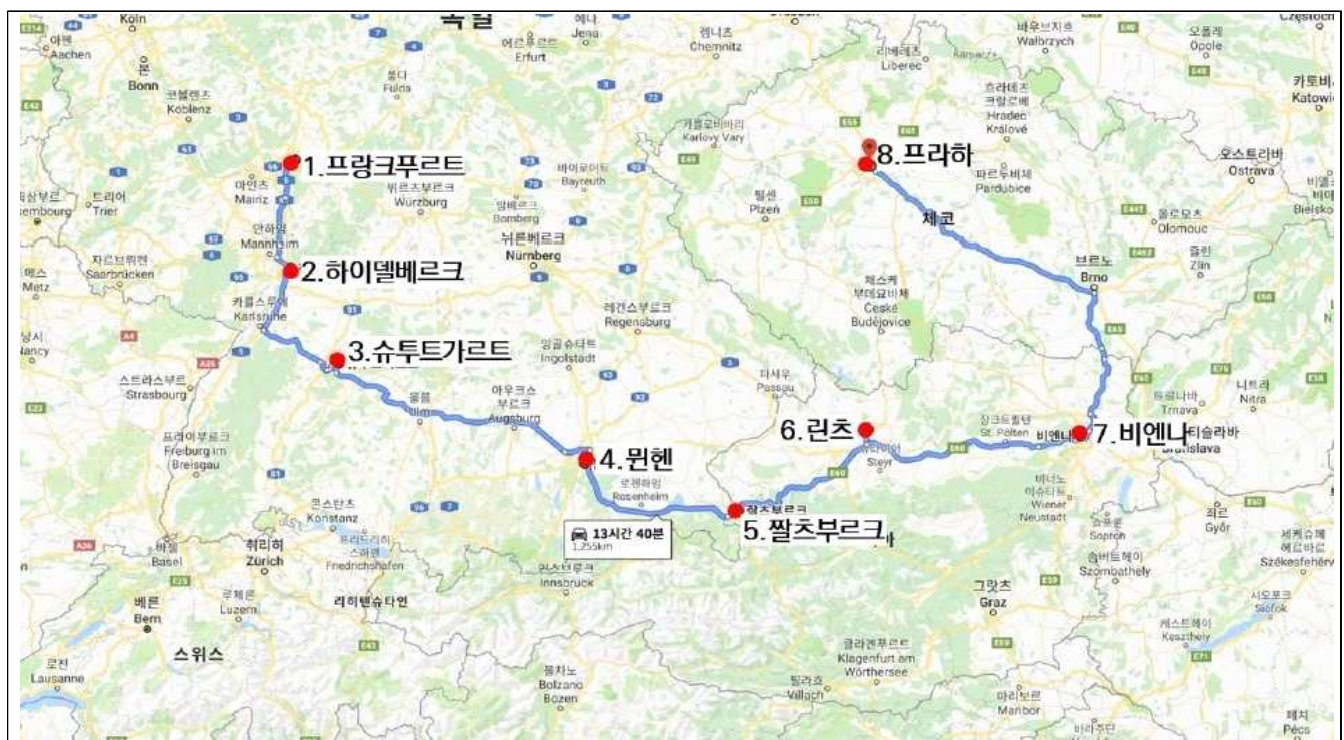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달성군의회	의 장	최 상 국	
	부 의 장	서 도 원	
	의 원	김 정 태	
	의 원	이 대 곤	
	의 원	김 보 경	
	의 원	신 동 윤	
	의 원	도 일 용	
	의 원	김 은 영	
의회사무국	국 장	김 종 호	
	의사담당	주 강 숙	
	주 무 관	김 가 램	
	주 무 관	박 재 우	

II. 연수 일정

일 자	시 간	지 역	주요내용
1일차 10.30.(수)	13:20		인천공항 출발(KE905)
	17:30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 (12시간 10분 소요)
2일차 10.31.(목)	09:30	하이델베르크	[기관방문] 하이델베르크의회 간담회 ▷ 의회 운영 현황, 선진 민주정치 시스템에 대한 상호 토론
	13:00		프랑크푸르트→하이델베르크 (1시간 소요)
	14:00		[현장시찰] 반슈타트 마을 ▷ 낙후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15:30		[문화체험] 하이델베르크성, 마르크트광장, 옛다리 등
3일차 11. 1.(금)	09:00		하이델베르크→슈투트가르트 (2시간 소요)
	11:00	슈투트가르트	[현장시찰] 슈투트가르트 에너지절약 주택전시장 ▷ 신소재를 이용한 에너지고효율, 친환경 주택 견학
	14:30		[현장시찰] 자동차박물관 견학 ▷ 지역 내 산업시설 자원을 활용한 관광 부가가치 창출 사례 견학
4일차 11. 2.(토)	10:00		슈투트가르트→뮌헨 (3시간 소요)
	14:30	뮌헨	[현장시찰] 뮌헨 신시청사, 마리엔광장 탐방 ▷ 공공건축물의 관광자원화 사례 수집
5일차 11. 3.(일)	09:00		뮌헨→잘츠부르크 (2시간 소요)
	11:00	잘츠부르크	[현장시찰] 잘츠부르크 세계문화유산 역사지구 ▷ 영화콘텐츠 및 문화유산 이용 사업화 현장 시찰 ▷ 구시가지 보존 및 자원 활용 사례 파악
	14:00		잘츠부르크→린츠 (2시간 소요)
	16:00	린츠	[현장시찰] 친환경 태양열 주거단지 솔라시티 ▷ 도시 개발 전반 및 신재생에너지 건축 맞춤형 사회주택 건설사례 탐구
	17:00		린츠→비엔나 (2시간 30분 소요)

일 자	시 간	지 역	주요내용
6일차 11. 4.(월)	09:00		[문화체험] 게른트너거리, 슈테판성당, 신부른 궁전 등
	14:00		[기관방문] 슈피텔라우 쓰레기소각장 ▷ 낙후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15:30		[현장시찰] 무제움스크바르티어 [현장시찰]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 낙후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7일차 11. 5.(화)	09:30		[기관방문] 비엔나의회 간담회 ▷ 의회 운영 현황, 선진 민주정치 시스템에 대한 상호 토론
	14:00		비엔나→프라하 (4시간 소요)
8일차 11. 6.(수)	09:00	프라하	[현장시찰] 프라하시립도서관 ▷ 선진도서관의 공간 구성 및 운영시스템 현장 연구
	10:30		[현장시찰] 프라하 세계문화유산 역사지구 ▷ 세계문화유산 보전 및 관광사업화 활용 사례 파악
	18:30		프라하공항 출발(KE936)
9일차 11. 7.(목)	12:40	인천	인천공항 도착 (10시간 10분 소요)



Ⅲ. 연수내용

<Ⅲ-1. 기관별 연수>

□ 하이델베르크의회 간담회



○ 방문일시 : 2019. 10. 31. 09:30 ~ 11:00

○ 면 담 자 : Dr. Jan Gradel(시의원)

○ 기본현황

- 면적 : 108.83km²

- 인구 : 약 16만명

- 특징 : 독일 라인 강의 지류, 네카르 강변의 대학도시·관광도시, 1386년 창설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으며 아름다운 고성으로 유명한 관광도시

- 의회구성

· 5년마다 선거 실시(2019년 5월 26일 최근 선거 실시)

· 시의장(시장) : Prof. Dr. Eckart Würzner(2006년부터 현재까지)

· 시의회의원 48명, 자원봉사자

○ 간담회 주요내용

- 하이델베르크 소개

하이델베르크는 연간 1,200만 명의 여행객들이 찾는 낭만의 도시인 동시에, 인구는 16만 5천명, 성장률 2.5%로 문화적,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하이델베르크는 대학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인구의 35%가 학생이며 약 4만 명 정도가 대학생, 5천 명 정도가 대학원생을 차지한다. 총 10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지금까지 57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다.

12만개의 일자리가 있고 도시 인근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도시 규모는 작지만 도시 인근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학생과 비상주 인구가 많아 세수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주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는 하원, 주의원, 시장, 시의원 이렇게 총 4번 치러진다. 총 18개의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별로 인구는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나뉘져 있다. 국제적인 도시라서 외국인이 많은데 유럽연합 출신의 외국인들은 시의회나 시장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청이 따로 있어 현지 외국인과 관련한 안전도 반영할 수 있고,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부서도 따로 있어 각 부서들이 시의회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 있다.

시의원들은 1주일에 20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한다. 약 1,000장의 서류 검토를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정당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정책별로 의견이 나오면 시의회에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며 참여는 자율적이다. 각 정당의 수장들은 비서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각 정당의 의견을 모아서 시의회에 올린다.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소개하면 행정, 교통·건설, 가족·사회·문화, 환경, 재정 총 5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시의회에서는 모든 업무 분야에 있어 조언자 역할을 한다. 행정부에서는 2,5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며 약 7,000개의 임대주택을 관리, 지원하는 주택관리 공사를 비롯해 관광, 축제관리, 전시회, 난방 등과 관련한 여러 시 산하 기업들이 있다.

- 질의응답

Q.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A.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계획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시에서 결정되는 모든 정책들은 계획서를 인터넷에 올려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정책들에 대해 반대 서명이 150인 이상이 되면 그 정책은 무조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150명이라는 인원이 그다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 외에 매주 월요일 마다 시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때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메일로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Q. 의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A. 행정구역 중 제일 작은 단위가 ‘게마인데’라는 단위인데(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 2~3,000명 정도 당 최소 9명의 대표를 뽑게 되어 있다. 또 10만 명이 넘는 독립적인 도시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40명, 50만 명당 60명의 대표를 뽑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구당 선출인원을 따르는 것인데 하이델베르크는 인구가 16만 명이므로 그에 비례하여 48명 정도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대표 의원을 뽑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며 참고로 하이델베르크 시에는 13개의 정당이 존재한다.

Q. 시의원은 유급인지?

A. 시의원은 명예직으로 다들 각자의 생업이 있고 근무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을 위해서 월 900유로 정도 지원을 받는다. 즉 본직은 따로 있고 마을 대표로 활동하는 셈이다.

Q. 우리는 인구 26만명 중에 의원 10명, 그중에서도 여자 의원은 1명이다. 하이델베르크의 경우는 여성의원 비율이 어떠한가?

A. 얼마 전에 새롭게 선거를 치렀는데 예전에 비해서 여성 의원이 많아졌다. 우리 정당 7명 중에 여성은 2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30퍼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독일법에는 후보 중에는 최소한 1/3이 다른 이성으로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고 물론 당선 여부와는 별개이다. 당선여부는 당연히 선거 결과에 따라할 것이지만 후보자의 최소 성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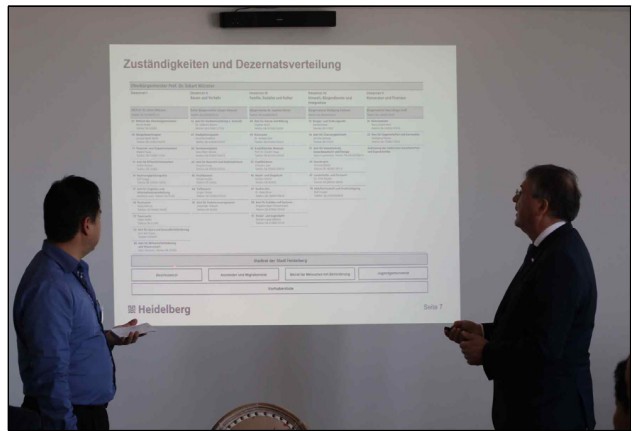
Q. 하이델베르크 중요정책이나 이슈는 무엇인지?

A. 교통과 거주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아무래도 오래된 도시이고 한쪽은 산, 한쪽은 강이라 도시 확장이 어렵다. 더 많은 전차들이 다닐 수 있게 선로를 증축하고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 이곳 하이델베르크는 집세가 비싼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보통의 소득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시 안에서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집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시내에서

살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시내 중심부에서 살기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지어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사실 교통이나 거주지 문제는 독일 전 지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하이델베르크만의 문제로는 문화와 환경을 들 수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축제를 하려면 도시 전체가 들쭉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 환경문제는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서 여러 단계를 나눠서 계획적으로 쪽 수순을 밟고 있는데 지금 5단계에 달하고 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0년 밖에 남지 않아서 계획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 비엔나의회 간담회



○ 방문일시 : 2019. 11. 5. 09:30 ~ 11:00

○ 면 담 자 : MAG. Thomas Reindl(비엔나 시의회 수장)

○ 기본현황

- 정식명칭 : 빈(Wien, 독일어), 비엔나(Vienna, 영어)

- 면적 : 414.6km²

- 인구 : 약 182만 명

- 특징

· 오스트리아의 수도, 하나의 독립된 주, 지방자치단체라는 3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님

· 비엔나 시의회는 시의회인 동시에 주의회의 역할을 수행

· 23개 구로 나누어짐

- 의회구성

· 5년마다 선거 실시

· 시의장 : Mr. Thomas Reindl

· 시의회의원 100명

○ 간담회 주요내용

- 비엔나 의회 소개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 아래로 광역자치단체인 9개의 주가 있고 주 밑에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치시가 있다. 비엔나는 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치시이기도 하다. 비엔나 시의회에는 100명의 의원이 있다. 현재 정당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민주당 44석, 자유당 34석, 녹색당 10명석, 기독교민주당 7석, NEOS 5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 비엔나 시장은 사회민주당의 수장이다.

- 질의응답

Q. 시장선거와 의원선거가 분리되어있는지? 설명에 따르면 다수당의 수장이 시장이 되는 간접선거로 보이는데?

A. 시장은 시의회에서 100명의 의원 중 다수당의 수장이 시장으로 선출된다. 우선 다수당이 선택되면 당 안에서 후보자를 다시 뽑아서 투표를 한다. 즉, 직접 사람을 선출하지 않고 당을 선택하며 이때 선호하는 사람을 별도로 체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시장은 비엔나시를 대표하고 시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저의 지역구를 예로 들어보면 22구인 도나우슈타트 지역에는 18만 명의 인구가 있고 10명의 의원이 있다. 그중 4명이 자유민주당, 3명이 자유당이다. 다수당(22구의 경우 사회민주당)에서 관할 구역의 수장(구청장)이 선출되며 2명의 구청장 대리인(부구청장)을 둘 수 있다. 한 명은 같은 정당(제1정당)에서 다른 한 명은 제2정당에서 뽑으며, 저는 22구의 구청장(제1정당) 대리인이다.

Q. 한국의 경우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 되어있는데 비엔나 시는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유는?

A. 행정권은 오스트리아 정부 전체에 있고 입법권, 사법권은 각 지방정부에서 수행한다. 주정부는 그 주 내에서 필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스트리아 내에 A주에서 법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시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주에서 시로 나눠주고 있는데 비엔나는 주이기도 하면서 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온다.

Q. 비엔나가 주의회인 동시에 시의회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뜻인가?

A. 그렇다. 행정부랑 입법부가 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엔나가 주이면서도 시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다소 복잡하다.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 A주 안에 여러 시가 있어서 시와 주가 함께 일을 하는 방식이라면 비엔나는 예외적인 지위 때문에 행정부랑 입법부가 하나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Q. 시장이 의장을 겸임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A. 정책에 대한 사전 검증과 검토는 물론이고 예산집행,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은 당연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Q. 지금 비엔나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금 비엔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비엔나 인구는 현재 약 190만 명으로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곧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엔나 시에서 제일 큰 사업 분야는 아무래도 관광산업이며 요즘은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어권 나라 중에서는 비엔나가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약 20만 명 정도가 학생 신분이다. 비엔나시 한 해 예산은 160억 유로인데 그 중 전체 예산의 1/4 이상(45억 유로)이 건강, 병원 관련으로 책정 되어 있다. 병원 종사자만 3만 명 이상에 달한다. 복지관련 예산으로는 20억 유로, 또 교육 분야에 88억 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건물을 새로 짓는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유치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취업시장이 좁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과 복지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택 건설, 도로 정비, 재건축 등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건강·복지 40%, 교육 15%, SOC 15%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Q.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놀라운게 건축인데 자재가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인지? 특히 성당 등 오래된 문화재의 경우 관리차원에서 설계도면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건축 당시 설계 도면 등이 잘 보관되어있는지?

A. 건축 재료는 다 국내에서 수급하고 있으며, 모든 구역에는 관련 도면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면적, 높이, 너비 등이 상세하게 적힌 관련 도면은 다 보관하고 있으며 소유주체가 분실되지 않도록 무조건 잘 관리해야 한다. 필요시 그 도면을 바탕으로 매번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보수 등을 실시한다.

성당 같은 경우는 관련 건축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짓고 관리는 종교단체에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슈테판 성당의 경우 현재 몇 십년째 보수 중인데 성당에서 후원금 모집 등을 통해서 보수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Q. 비엔나가 수 년 동안 살기 좋은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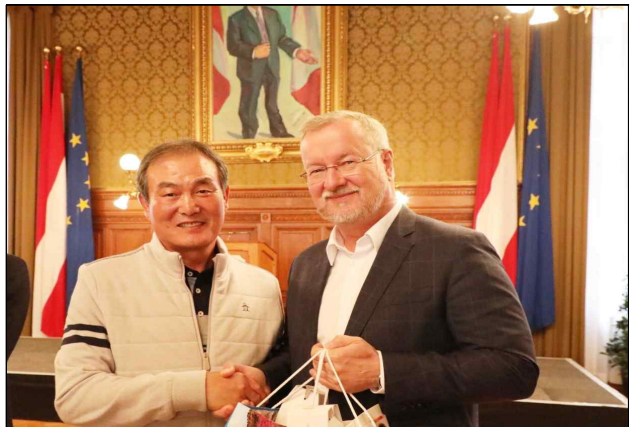
A. 먼저 비엔나의 경우 파시즘시대를 제외하고 지난 100년 동안 사회민주당에서만 시장이 선출되었는데 정치의 연속적인 면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Dr. Micael Haupl이라는 시장의 임기가 끝났는데 그분은 무려 22년 동안 시장을 하셨다. 5년마다 시장이 새로 바뀌는 것보다는 안정적인고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집권당이 자주 교체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비엔나 시내를 둘러싼 길이 있는데 그 길은 150년이 됐다. 지금은 비엔나가 많이 커졌지만 당시에는 그 시내가 도시 전체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시내를 중심으로 비엔나가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런 점 또한 살기 좋은 도시의 요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비엔나 시민 중 아무도 뒤쳐지지 않게 가는 것이다.

Q. 그 말씀은 시민 모두가 동일하게 복지를 가져가도록 한다는 말씀이신지?

A. 시의 주거정책을 예로 들자면 몇 년째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수가 20만호 정도이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꼭 어려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이 지어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비엔나 전체에 확산하고 싶다. 비엔나 시내에는 집값이 많이 비싼 편이지만 최대한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 외곽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비엔나에서는 거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 모두 다 평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거주 문제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거주 문제만 자세히 언급했지만 평등하게 같이 잘사는 목표가 건강, 교육, 일자리 등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비엔나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다.



☞ 연수소감 및 시사점

• 기관대립형 vs 기관통합형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립을 통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형태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의회의 수장이 시장이 되는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었다. 기관통합형의 경우 민주정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하고 비엔나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경우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쪽이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겠지만 기관대립형의 단점 개선 측면에서 기관통합형 형태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 비엔나의 주거복지정책

비엔나는 전체 가구의 60%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주택에 살고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17%로 낮다. 임대와 분양주택을 고루 배치하여 슬럼화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소셜믹스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는 1인당 소득 5만 달러, 국민부담률 44%가 뒷받침하는 고부담 고복지의 전형으로 문제점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월세 증가 등의 이유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져 결혼을 포기하고 이는 곧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엔나의 주거복지정책은 부러울 수밖에 없다.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오랜 투자가 축적되어야 한다. 비엔나는 주택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무려 100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개선했고 그 결과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비엔나의 주거복지정책을 모델삼아 지자체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동반한 주거해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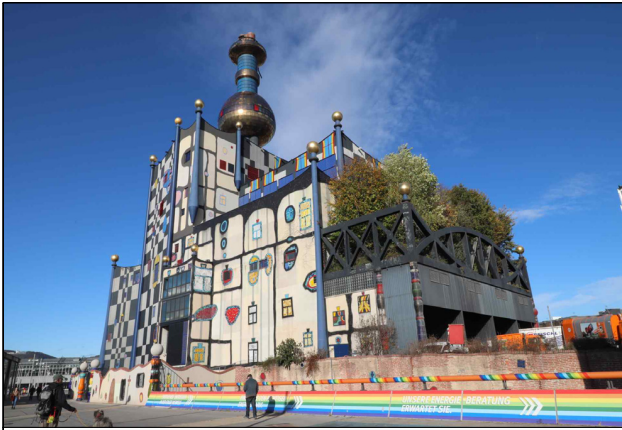
· 정책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150인 이상의 서명 정책 재검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주요 프로젝트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150인의 서명만으로 정책을 재검토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50인이라는 숫자가 인구 대비로 볼 때 결코 많은 수가 아니므로 잦은 잡음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어 때때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과 소통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달성군신규사업 군민검토제’ 도입 검토

(집단 이익을 위한 사업무산 등 악용의 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반대서명 인원
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비엔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견학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오스트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
'빈 에너지(Wien Energie)'

- 방문일시 : 2019. 11. 4. 14:00~ 15:30
- 면 담 자 : 빈에너지(Wien Energie) 홍보 및 안내 담당 직원
- 주요내용
 -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소개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외관의 변천

1987년 5월 화재로 소각장 외관을 재보수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화가이자 건축가인 프리텐스라히 훈데르트바서가 그 설계를 맡아 지금의 외관을 하게 되었으며 기능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비엔나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굴뚝 상단에는 새들이 살고 있는데 이는 본 시설이 그만큼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자 함이다. 현재 연간 25만톤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비엔나의 가구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빈 에너지라는 기업에서 이곳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 쓰레기 처리과정

① 분리배출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 처리 과정 중 하나일 뿐 쓰레기를 처음부터 잘 분류해서 버리면 소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분리수거에 관해서 아주



비엔나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강조를 하는 편이다. 비엔나에 쓰레기장이 많은데 냉장고나 가구부터 독극물까지도 무료로 버릴 수 있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처음부터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비엔나 같은 큰 도시에는 분리수거가 그나마 잘 시행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쓰레기수거

쓰레기수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각 두 번 실시하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는 토요일에도 쓰레기차량을 운행 한다. 쓰레기차량은 한번에 6톤씩 운반할 수 있으며 수거 후 소각장 출입 시 차량 번호 인식과 함께 쓰레기의 무게를 계량한다. 그 다음 쓰레기 집하장으로 옮겨지는데 본 쓰레기 소각장은 도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악취 방지를 위해 그 문은 늘 닫혀있다 쓰레기를 투하 할 때만 열리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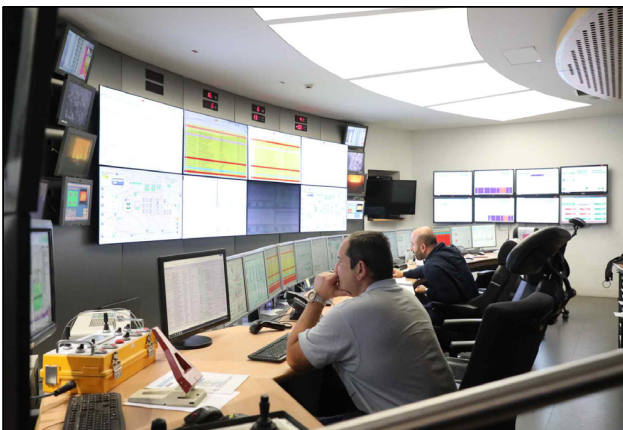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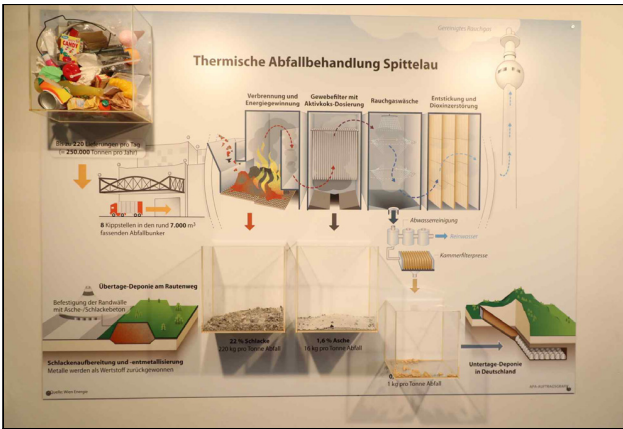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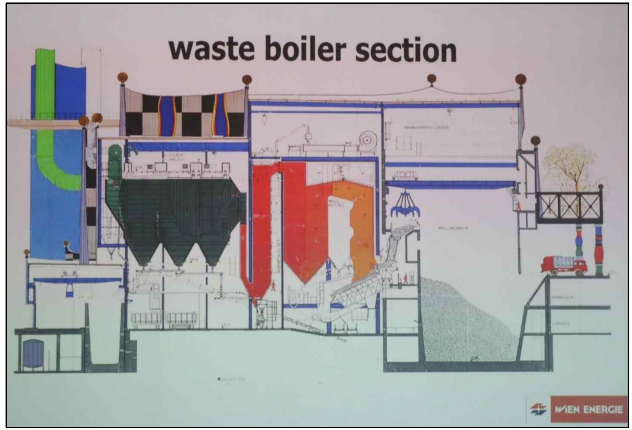
쓰레기 집하장 입구



쓰레기 수거차량이 집하장으로 쓰레기를 투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③ 쓰레기소각

쓰레기 병커 입구에서 1차로 큰 쓰레기는 거른 후 병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며 커다란 집게발 모양의 기계가 그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겨 넣고 그 후 본격적인 열처리가 이루어진다. 쓰레기는 850~1,200도의 열로 소각하며 그 과정에서 따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병커 안에 있는 공기를 활용한다. 병커 안 공기는 쓰레기가 약 2주 정도 보관 되어 있으면서 내뿜는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 시설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 보니 그 공기를 바로 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 공기를 사용해서 열을 일으킨다. 즉 더러운 공기도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는 셈이다. 이렇게 폐기물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 쓰레기들은 원래 부피의 10퍼센트 정도로 줄어든다. 이들을 다시 고철 부스러기들로부터 분리해 건축용 시멘트로 재활용하게 되며 최종 적으로 남는 소각재만 매립처리 한다.



☞ 연수소감 및 시사점

·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

도심에 위치한 만큼 악취관리, 유해가스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제 기준치 보다 낮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최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시설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시민들의 인식 개선

시민들이 본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써 공익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저렴한 난방열 공급을 혜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공익시설의 수용은 당연한 주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 인력채용 혜택,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의 반대급부적인 주민지원은 없다고 한다.

· 혐오시설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식의 전환

도심 속 소각장 설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시민들의 반대이다. 공익시설이니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한다든지, 반대급부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이지도 않다. 철저한 오염 관리와 더불어, 소각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혐오시설의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시각적 환경오염'까지 제거한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홍보효과도 있어 시민들의 폐기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 달성남부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 공해문제에 활용

(관련 사례 발표회, 시설견학 지원, 유해물질 필터시스템 및 외관 개선 방향 논의 등)

<Ⅲ-2. 분야별 연수>

□ 친환경·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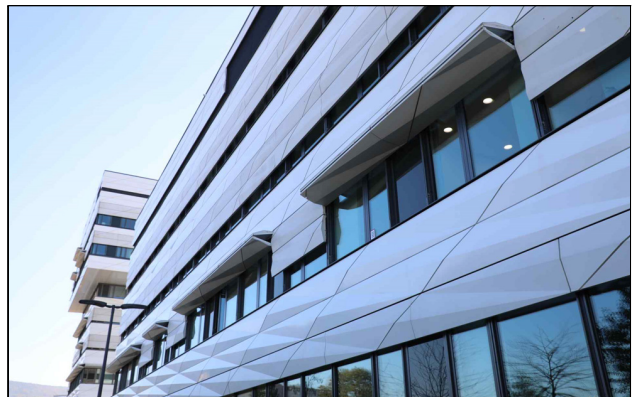
○ 반슈타트 마을

시 의회에서 에너지 컨셉을 갖는 주거, 사무, 교육 복합단지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버려진 철도 및 화물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연구소, 유치원, 학교 등으로 개발하였다. 재생에너지 공급, 빗물저장 활용 시스템, 옥상녹화, 자연보존, 대중교통 활성화, 특수 단열재 및 이중구조 창문 설치, 하이테크 여과시스템 및 공기순환장치 등 친환경 요소를 적용하고 모든 건물을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건축하여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여 일반 타 건축물보다 에너지를 90% 절감하였다. 또한 지역 자체 내에서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자립형 도시이다.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폐철도 부지를 세계적인 패시브하우스 단지로 재개발하여 에너지 절감과 시의 랜드마크 공간으로의 재탄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옛 철도 역사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채광과 단열에 용이한 독특한 외부차양 장치



무인 주차 발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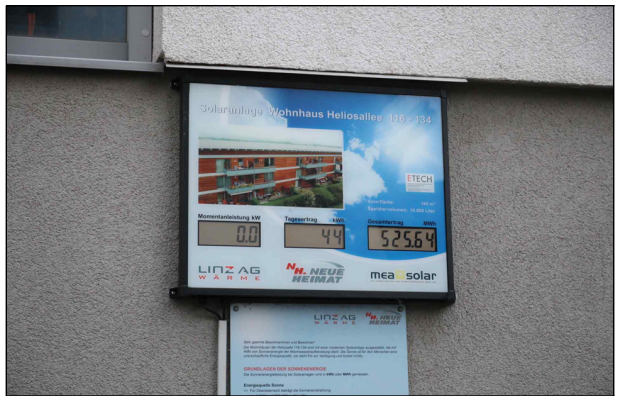
시각적효과와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인공 친수 공간(도심 수로) 조성

○ 친환경 태양열주거단지 솔라시티

1990년대 주거시설부족 문제 해결과 중·저소득층에게 주택공급을 위하여 린츠 외곽 지역을 개발·조성한 친환경 주거단지로써 전체 사용 에너지의 35%는 태양광, 태양열에서 얻고 나머지 65%는 쓰레기 소각, 지열 등을 이용해 단지 내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솔라시티 단지 중앙에 트램을 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쉽게 만들고, 주거단지 내 차량진입을 차단하고 보행중심도로 및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단지 중앙의 컬러풀한 차양막은 솔라시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관광객의 발길은 드물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시찰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5층창호 유리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주택단지 내 계기판



솔라시티의 랜드마크, 컬러풀한 차양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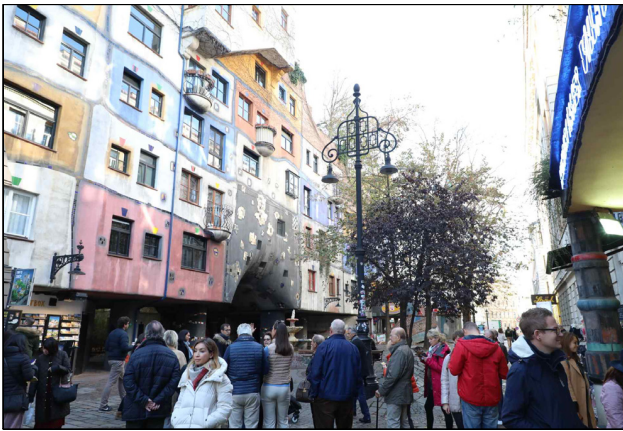


단지 중앙에 배치한 트램



○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빈의 제3구역에 세워진 사회주택 건물로, 구 중심가의 도시 블록에 넓게 자리 잡았다. 훈데르트바서는 벽을 작은 단위로 잘라 서로 다른 색과 질감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지붕 정원을 만들어, 그 안에 250종류의 나무를 심었다. '획일적이지 않은 불규칙함', '창문의 다양함', 그리고 '아름다운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기준으로 전체 구조를 만들었으며, 평평한 바닥과 일직선의 복도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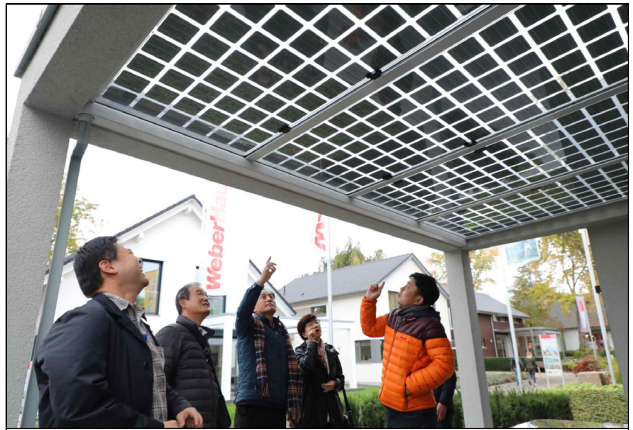


○ 슈투트가르트 에너지절약 주택전시장

슈투트가르트 근교에 위치한 Fellbach 주택전시장은 신소재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주택 60개 이상의 조립식 목재 주택들이 전시되어 있어 제어식 환기 시스템, 열펌프, 광전지, 천연 단열재 사용, 지능형 난방 시스템 사용 등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효율 에너지 주택 사례를 견학할 수 있다.



3중 유리로 창을 크게 내 채광과 단열 효과 모두를 잡은 주택



태양광 시스템을 갖춘 테라스 천장



다양한 방법으로 단열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

☞ 연수소감 및 시사점

·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활성화를 동시에.

반슈타트, 린츠시,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의 공통점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주지라는 점이다. 특히 린츠시의 경우 특별한 관광요소가 없음에도 관계자들의 시찰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또한 친자연적이고 개성 넘치는 외관으로 각국의 관광객들을 끌고 있으며 연계상가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성공적인 도시재생에 더불어 관광이라는 또 하나의 부가적 가치를 창출해 낸 셈이다.

또한 주택 단지 조성 시 주택 자체의 에너지 단열뿐 아니라 도심 중앙에 트램역을 배치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단지 내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과 자전거 이용 유도, 도심수로 조성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화원, 논공 등 지역 내 구도심 도시재생

공공청사부터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건축물 도입하여 주택단지로 확대 시행 검토
(화원 도심재생사업 중 주민커뮤니티 공간, 상상 어울림센터 건립 시 우선 도입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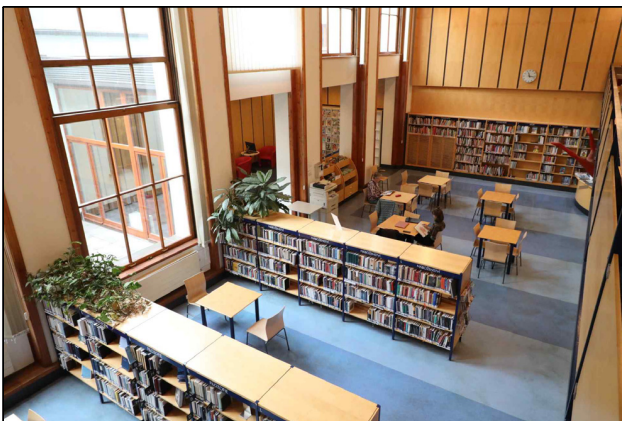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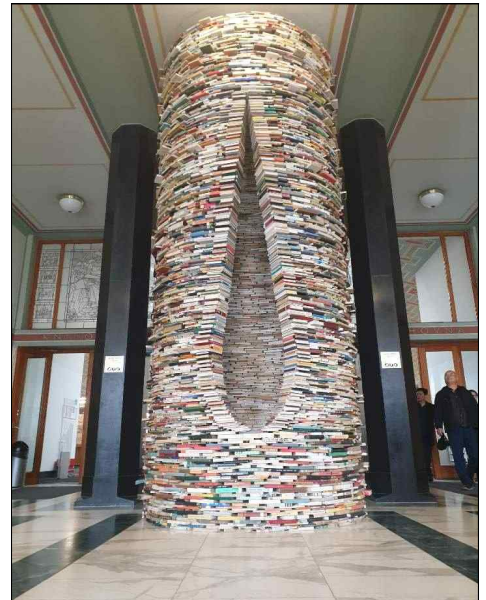
⇒ 가창, 하빈 지역에 에너지 절약 주택 전시장 조성

도심 인접 전원주택에 적합한 가창, 하빈 지역에 에너지 절약 주택 전시장을 조성하여
고효율 에너지 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가와 관심 유도

□ 문화인프라 확충

○ 프라하시립도서관

1891년 7월 1일 프라하 최초의 공공 도서관으로 개장한 후 몇 차례의 장소 이전 끝에 1903년 현재의 위치와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프라하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서관 입구에 프라하시립도서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의 샘’이라는 책탑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프라하 교통카드만 있으면 도서관에서 등록 후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아동도서 구역이 잘 되어 있어 유아기부터 도서관 이용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모든 방문객들에게 열려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도서관이라는 인상을 준다.





⇒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 관련

- 도서관 입구에 폐도서를 활용한 상징물 설치
- 아동친화적 인테리어 구성, 놀이공간 설치 등 아동도서관 확대 운영

○ 슈투트가르트 뷔르템베르크 주립박물관

슈투트가르트 성의 구 궁전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동기, 철기시대의 선사 유적을 비롯해 100만개가 넘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뷔르템베르크 주의 지역문화 유산을 현재까지 잘 보존하고 있어 매년 약 30만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치고는 전시 유물의 양이 상당하고 궁전 내부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연수소감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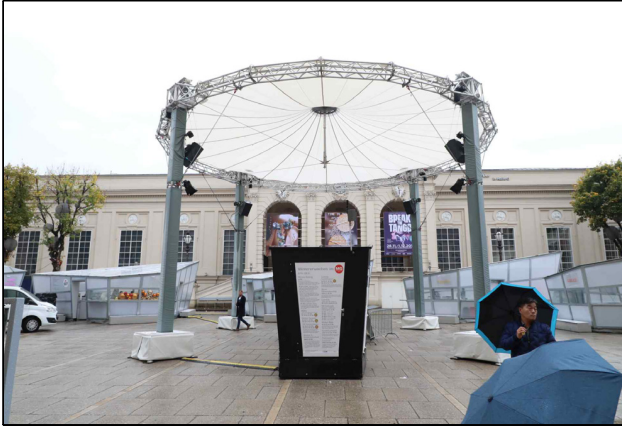
· 지방 박물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고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먼저

슈투트가르트 뷔르템베르크 주립박물관을 방문하고 고성 내부를 박물관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상당한 양의 전시 유물에 아주 놀랐고 관람객 수에 한 번 더 놀랐다.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시관, 박물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 수는 늘었지만 이를 찾는 관람객들은 많지 않다. 입장료가 있는 곳이라면 상황은 더 어렵다. 이유는 규모와 시설에 비해 빈약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한마디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비엔나의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성인은 입장료가 비싼 편이지만 청소년(만 18세 이하)이하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장료가 무료인 곳이 많다. 대인, 소인으로 입장료가 나뉘져 있는 우리와는 다소 다른 시스템이다. 시설의 수와 규모에만 집착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시 주제와 콘텐츠, 체험거리들로 전시관을 채워 입장료가 아깝지 않는 문화시설을 만드는 일이 문화인프라 확충의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뮤지엄스크바르티어

한 때 황실 마구간이었던 건물의 활용여부에 대해 논의 끝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레오폴트 미술관, MUMOK 등 유명한 미술관이 밀집되어 있으며 큰 광장이 있어 매년 여름에는 빈 축제의 중심이 되는 오스트리아 예술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연수소감 및 시사점

· 기존 시설 활용과 문화예술시설의 집적을 통한 선순환

부지확보의 어려움, 신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을 채택하여 문화·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기관 간 관람객 상호유입을 통해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기호 충족을, 기관운영측면에서는 공동전시, 공동행사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존 대구교도소 건물을 허물기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존치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인근에 미술관, 전시관 등을 유치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문화 · 관광

○ 공공건축물

뮌헨 시청사의 경우 독일 최대 특수 장치 인형시계가 매일 오전 11시에 작동하며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또한 비엔나 시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관공서의 개념을 넘어서 시청 광장과 공원까지 아우르는 공공장소로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자부심이 되고 있다.



뮌헨시 신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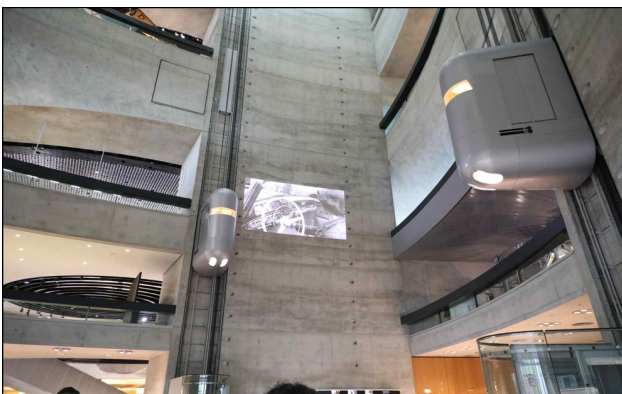
비엔나 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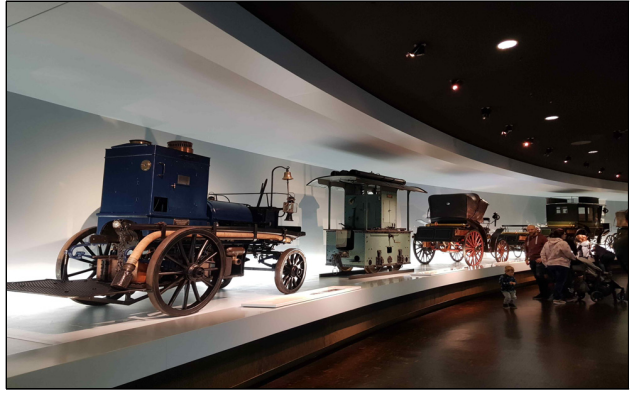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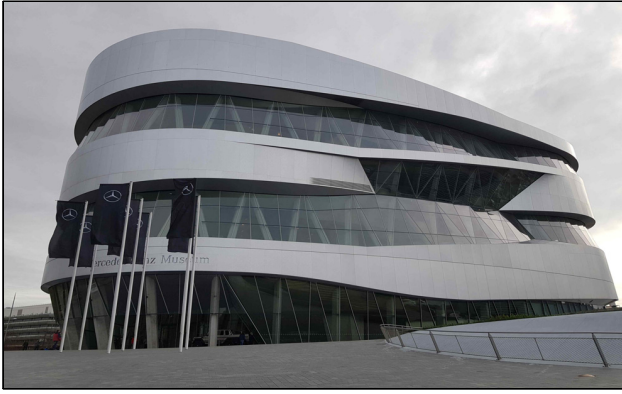
☞ 연수소감 및 시사점

· 공공청사의 관광명소화

뮌헨시청과 비엔나시청 두 곳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필수 관광코스이다. 특히 뮌헨 신 시청사의 경우 구 시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1909년에 완공하였는데 100년이 넘는 건물이 신 시청사라고 불리며 구 시청사는 시의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탑에는 인형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신·구 두 청사 모두 업무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 시청사 이전이 지역 최대 이슈인 만큼 두 지역의 사례를 살펴 지역을 대표하는 관공서 건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 슈투트가르트 벤츠 자동차 박물관





벤츠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박물관으로, 벤츠 자동차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과거로 가는 듯한 영상과 함께 켈 꼭대기층에 도착하여 나선형으로 돌면서 과거 마차부터 현대의 자동차까지 보면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외관이 캡슐과 흡사하여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여행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각국의 관람객들을 위해 오디오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 연수소감 및 시사점

· 산업관광 활성화

산업관광은 기업체의 생산 현장이나 홍보시설, 과거 산업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소득 및 고용을 늘리고 관광자원 다각화를 통한 관광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다. 달성군에도 성서5차, 달성 1·2차,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는 만큼 지역 내 산업관광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 화석박물관 건립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시간여행 컨셉 도입

⇒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하여 산업관광지 조성 홍보, 시티투어와 연계 등

○ 역사지구 견학

잘츠부르크에는 중세 때부터 19세기까지 발달해 온 풍부한 도시구조가 잘 보존 관리되어왔으며 음악가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모차르트 생가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1996년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프라하는 중세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1,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유럽에서도 중요한 역사유적으로 평가받으며 1992년 구시가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연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 연수소감 및 시사점

· 세계문화유산 보전,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야

잘츠부르크에는 100년도 넘은 카페가 성행 중이고 프라하 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났듯 곳곳이 중세 건축물의 낭만으로 가득하다. 이들 두 도시는 눈을 돌리면 어디에서나 오래된 건축물과 유적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거리에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 극히 한정적이다. 그만큼 문화유산을 대하는 자세나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프라하의 경우 건물의 고도제한은 물론 내부수리조차도 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고 한다. 물론 고도제한, 건물 증축 제한 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높은 시민의식부터 배워야 한다. 두 나라의 역사지구를 둘러 보며 정부차원에서 문화재 자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9년 7월 달성의 도동서원을 비롯한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문화재는 우리 역사의 증언이며 우리는 이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이를 깊이 인식하고 문화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자연스럽게 우리 유산의 가치를 깨닫고 자부심을 이끌어 내는 일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

IV. 총 평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에서는 매년 전 세계 450개 이상의 주요도시 생활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230여개 도시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얼마 전 새롭게 발표한 도시 순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은 '뮌헨'을 비롯해 무려 3개 도시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가 수도 중심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이산화탄소 제로 도시를 목표로 1992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에서 주택 설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와 정책추진 끝에 지금의 세계 최고 환경도시 하이델베르크에 이르렀다.

비엔나는 주택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친 결과 전체가구의 60%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외관도 획일적인 네모난 건물을 탈피해 독특하고 친자연적인, 공공주택의 천국이 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에 딱 맞는 수요 맞춤형 정책을 펼쳐 그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수기간 중 토론의 주제로 삼은 것은 우리 군과 달리 잘 정비된 상점과 도로의 풍경이었다. 상점의 간판이 작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시내든 시외든 거리에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였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차별화하는 물품 취급과 전통적인 가게 육성으로 대형마트와 공존하는 현실을 보고 화원, 현풍 재래시장의 해답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이번 연수에 임하면서 초선의원 8명이 저마다 선진사례를 보고 배워서 해결 하고픈 지역의 현안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떠났다. 연수만 다녀오면 해결책 하나씩은 터하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 이제부터가 시작 이구나, 가기 전에 했던 수많은 조사와 준비, 수차례의 사전회의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입력해도 해외의

우수한 선진 사례들은 수도 없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니 책이나 인터넷에서 볼 때와 실감되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말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직접 보고 듣고 배워온 힘을 바탕으로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 달성만의 지역정책은 무엇일지, 지역 곳곳에 산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또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달성의 이름을 올리는 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자료수집 출처

- ▷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
- ▷ 한국일보_윤종원칼럼 ‘남들과 다른 비엔나 주택정책’
- ▷ 매일신문_[산업관광 굴뚝에 피는 관광의 꽃] <1>프롤로그: 왜 산업관광인가